

10-15 (통권 제 15 호)

2010. 06. 23



동북아 REVIEW

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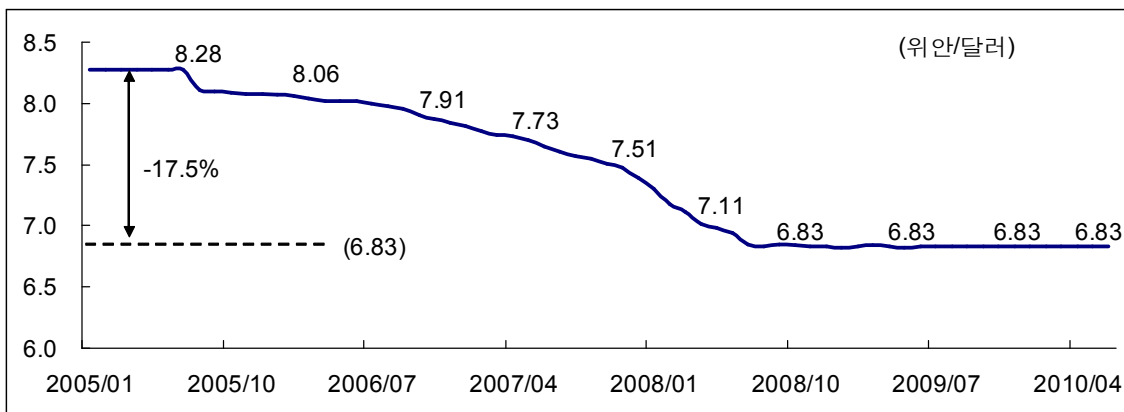


□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과 시사점

○ (개요) 중국인민은행¹⁾은 6월 19일 위안화 환율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

- 금번 조치로 중국은 근 2년 만에 환율결정시스템을 사실 상의 달러페깅제(dollar-pegging)에서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함
 - 중국은 2005년 7월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에서 관리변동환율제(통화바스켓제)로 전환하였으나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 상의 고정환율제를 운영해 옴
- 그 동안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왔던 미국,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 조치에 대해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

< 미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환율 추이 >



자료 : 중국 국가외환관리국(SAFE).

○ (배경) 중국의 금번 조치는 대내외의 정치, 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

- 6월 말로 예정된 캐나다 G20회의를 앞두고 미국, 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위안화 환율 절상 요구가 거세질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
- 글로벌 경제의 회복기미가 가시화되고 중국경제가 펀더멘털 강화로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큼

1) 중국인민은행(People's Bank of China)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의 실시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주요 업무임.

- 중국인민은행은 담화문에서 국내외 경제 형세와 국제 수지 상황을 감안할 때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
- 또한 올 들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와 환율 중 시기적으로 후자에 대한 先 조정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로 보임

○ (주요내용) 중국의 금변 조치는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 제고를 목표로 위안화 환율의 변동 폭을 확대하는 것이 취지

- 중국인민은행은 담화문에서 위안화 환율의 결정 방식을 시장 수급에 근거한 관리변동환율제(통화바스켓제)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함
- 중국인민은행 대변인은 위안화 환율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큰 폭의 조정보다는 점진적 조정으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함
- 또한 중국은 기존의 환율 변동 폭 범위 내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해 동태적 관리를 수행할 것임을 밝힘
 -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간시장(inter-bank market)에서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을 기준가의 $\pm 0.5\%$ 로 규정하고 있음

○ (전망) 환율제도 개혁으로 위안화의 절상이 예상되지만, 변동 폭은 미미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

- 관리환율변동제로의 전환은 위안화를 절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한 전시효과일 가능성이 큼
- 또한 중국이 환율제도 개혁에 대해 자주적, 점진적, 통제적 원칙을 견지하는 한 큰 폭의 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움

이만용 연구위원(danieli@hri.co.kr, 02-2072-6237)